

2024.06.11.(화) 증권사리포트

HD현대일렉트릭

장납기 물량이 쌓이면서 중장기 수익성 우상향 기조 전망

[출처] BNK투자증권 이상현 애널리스트

미드틴 이상 마진으로 안착 전망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3조3,372억원(+23% yoy), 영업이익 5,194억원(+65% yoy), 영업이익률 15.6%(+3.9%p yoy) 수준으로 전망한다.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에서는 리쇼어링, AI-데이터센터, 전기차 사용 확대 등으로 전력시장 성장이 이어지고, 중동에서는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의 신재생 에너지원 운영 목표 등으로 우호적인 수주가 전망되며, 선박용에서는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 등으로 회전기기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수주잔고는 장납기 물량이 쌓이고 있으며, 적절한 규모의 증설로 대응 중

전력기기 시장 호황 사이클이 이어지며 신규수주와 수주잔고 증가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1Q24 기준 수주잔고는 50.8억 달러(+66% yoy, 원화 6.5조원)를 기록했다. 대략 2년치 이상의 수주물량이 쌓여있고 최근 받는 수주의 납기는 3년 이후인 장납기 물량으로 파악된다. 울산공장과 엘라바마공장 증설(20% 내외)을 통해 늘어난 전력기기 수주에 대응하고, 또한 배전부문 증설(2026년 본격적으로 2,5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 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80,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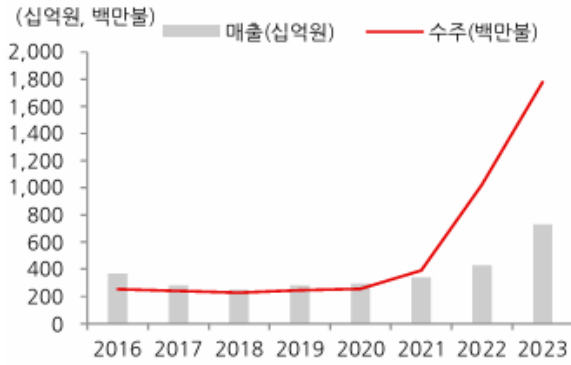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80,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글로벌 전력인프라 투자와 변압기 수요 증가 사이클을 감안할 때 주가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목표주가는 12M Fwd BPS에 Fundamental ROE PBR 밸류에이션을 적용했다. 목표주가의 Implied PER은 30.3배 수준이다

Fig. 1: HD현대일렉트릭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2,104	2,703	3,337	3,887	4,407
영업이익	133	315	519	652	805
세전이익	164	311	491	630	793
순이익[지배]	162	259	396	512	645
EPS(원)	4,508	7,189	10,976	14,192	17,896
증감률(%)	흑자전환	59.5	52.7	29.3	26.1
PER(배)	9.4	11.4	23.7	18.3	14.5
PBR	1.8	2.8	6.7	5.1	3.9
EV/EBITDA	10.7	9.6	16.7	13.1	10.3
ROE(%)	22.1	27.7	32.6	31.8	30.3
배당수익률	1.2	1.2	0.5	0.7	0.8

자료: HD현대일렉트릭,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Fig. 2: HD현대일렉트릭 북미시장 연간 매출과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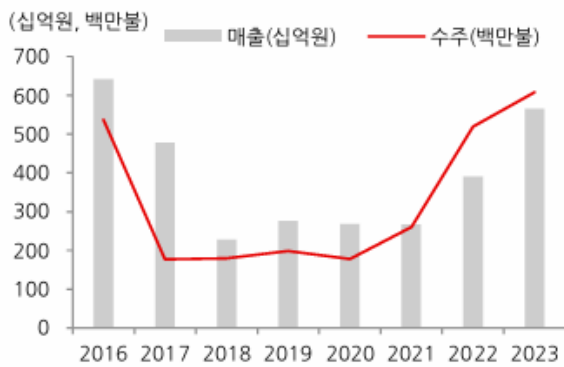
자료: HD현대일렉트릭, BNK투자증권

Fig. 3: HD현대일렉트릭 북미시장 분기 매출과 수주



자료: HD현대일렉트릭, BNK투자증권

Fig. 4: HD현대일렉트릭 중동시장 연간 매출과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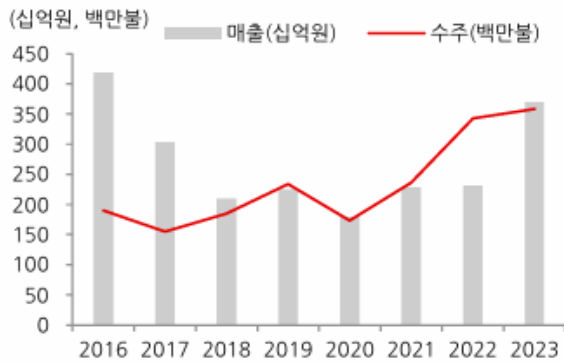
자료: HD현대일렉트릭, BNK투자증권

Fig. 5: HD현대일렉트릭 중동시장 분기 매출과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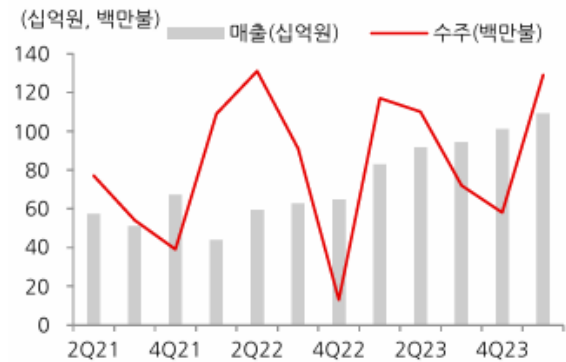
자료: HD현대일렉트릭, BNK투자증권

Fig. 6: HD현대일렉트릭 선박용 제품 연간 매출과 수주



자료: HD현대일렉트릭, BNK투자증권

Fig. 7: HD현대일렉트릭 선박용 제품 분기 매출과 수주



자료: HD현대일렉트릭, BNK투자증권



디케이락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영일만 석유 시추 모멘텀까지

[출처] 하나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영일만 석유 시추, 피팅 밸브 업체 수혜 전망

지난 6월 7일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박사와 한국석유공사 인터뷰를 통해 영일만 석유매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수요 기준 원유 약 4년치, 가스 약 29년치에 상응되는 물량이다. 시추 성공 확률은 약 20%로 예상되고 있으며, 1공 당 약 1천억원, 5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감안 시, 총 5천억원의 프로젝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2월 1차 탐사시추가 시작될 것으로 파악되며, 전체 시추 기간은 약 1.5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조선 및 건설 업체를 포함해 석유 시추장비 설치와 기초 인프라 구축의 수혜가 예상되는 피팅 밸브 업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디케이락은 조선 매출 비중이 높은 경쟁사 대비 석유 가스 향 매출을 확대중에 있어 지금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석유 시추 인프라 구축의 핵심 부품 제조

디케이락은 1986년 설립된 석유화학/해양플랜트/반도체/조선 등의 산업에 적용되는 피팅 밸브 제조 업체다. 조선 업황 다운 사이클 시기에 석유화학 사업을 확대하며 엑슨모빌, 다우케미칼, 마라톤 페트롤륨 등 글로벌 유수의 석유 화학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였다[도표 3]. 2023년 기준 3천억원 규모 CAPA를 확보했으며, 석유 화학 향 매출 비중은 약 60%를 넘어서는 만큼, 향후 석유 화학 업체 향 매출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석유 가스 시추 및 개발 작업에는 시추 장비, 파이프라인, 웰 헤드 등의 인프라 설비가 필요한데, 동사는 파이프, 플랜지, 밸브 구조체 등으로 이루어진 '프로세스 밸브'를 제조하고 있어 석유 개발 공정의 핵심 부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세스 밸브는 석유 가스 탐사/생산/처리/운송 등 다양한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이며, 볼 밸브/게이트 밸브/글로브 밸브/체크 밸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석유 시추에서 매장량을 측정 및 분석하는 계측장비와 파이프를 이어주는 이음새 기능을 하는 동시에, 유전 파이프에서 추출되는 석유량을 조절한다. 고온 및 고압 환경에서 대응 가능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여 미국석유협회(API)의 6DSS-Subsea Pipeline Valves와 같은 국제표준인증을 받은 만큼 심해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매출액 1,300억원, 영업이익 130억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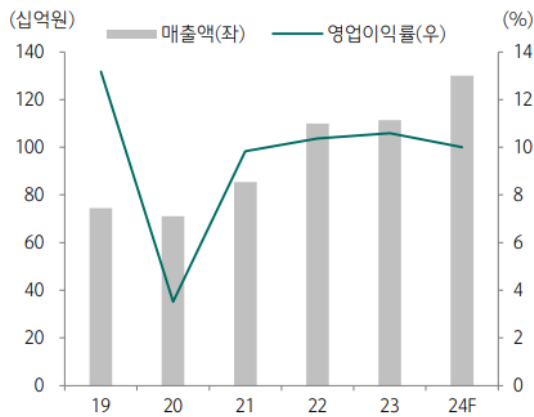
2024년 매출액 1,300억원(+16.6%, YoY), 영업이익 130억원(+8.4%, YoY)으로 전망한다. 24F PER 9배 수준이며, 작년 11월 오버행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하반기 영일만 시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른 추가 업사이드 포텐셜을 기대할 수 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71	86	110	111
영업이익	3	8	11	12
세전이익	(0)	10	7	13
순이익	(0)	9	6	12
EPS	(14)	1,065	685	1,199
증감율	N/A	흑전	(35.7)	75.0
PER	(1,057.1)	10.2	16.4	7.5
PBR	1.4	0.9	0.9	0.7
EV/EBITDA	29.6	10.0	8.6	7.2
ROE	(0.1)	9.1	5.2	8.7
BPS	10,814	11,709	12,310	13,084
DPS	150	200	200	250

도표 1.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디케이락, 하나증권

도표 2. CAPA 현황



자료: 디케이락, 하나증권

도표 3. 고객사 현황

Oil & Gas		Equipment	
Petro Chemical		CNG/NGV	
EPC Plant		Semi/Display	
Shipbuilding		Hydrogen	

자료: 디케이락, 하나증권





효성중공업

중공업 부문 주도 실적 향상 전망

[출처] BNK투자증권 이상현 애널리스트

중공업 부문이 실적 주도하며 향상 전망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4조6,851억원(+9% yoy), 영업이익 3,328억원(+29% yoy), 영업이익률 7.1% (+1.1%p yoy) 수준으로 전망한다. 부문별로는 중공업 부문에서 매출액 3조17억원(+16% yoy), 영업이익 2,537억원(+45% yoy), 영업이익률 8.5%(+1.7%p yoy), 건설 부문에서 매출액 1조6,834원(2% yoy), 영업이익 791억원(-5% yoy), 영업이익률 4.7%(-0.1%p yoy) 수준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로 중공업 부문이 실적 호조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북미시장의 리쇼어링과 AI관련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전력기기 호황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생산 법인의 경우 분기 흑자전환하며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그 외 중국과 인도법인의 이익기여도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 증설여부 결정

1Q24 기준 수주잔고는 9.2조원(+13% yoy)으로 이 중 중공업 부문 4.1조원(+17% yoy), 건설 부문 5.0조원(+10% yoy)이다. 전체 수주잔고로는 대략 2년치 물량이고, 중공업과 건설 부문으로는 각각 1.4년치, 3년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동사는 전력기기 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 즈음 증설 관련 투자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50,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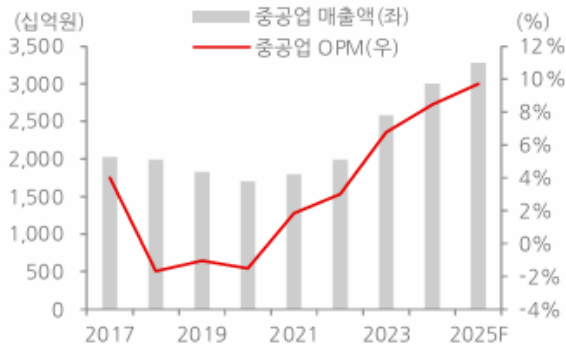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50,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BPS에 Fundamental ROE-PBR 밸류에이션을 적용했다. 목표주가의 Implied PER은 22.7배 수준이다.

Fig. 1: 효성중공업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3,510	4,301	4,685	4,929	5,251
영업이익	143	258	333	394	464
세전이익	60	170	262	344	429
순이익[지배]	10	116	161	210	262
EPS(원)	1,096	12,438	17,317	22,539	28,052
증감률(%)	-82.3	1034.9	39.2	30.2	24.5
PER(배)	71.2	13.0	21.4	16.5	13.2
PBR	0.7	1.4	2.8	2.5	2.1
EV/EBITDA	9.9	7.7	10.9	9.1	7.5
ROE(%)	1.1	11.3	14.0	16.0	17.2
배당수익률	0.0	1.5	0.7	0.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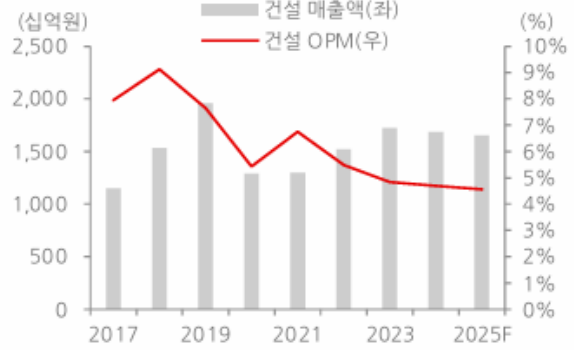
자료: 효성중공업,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Fig. 2: 효성중공업 연간 중공업부문 매출액과 O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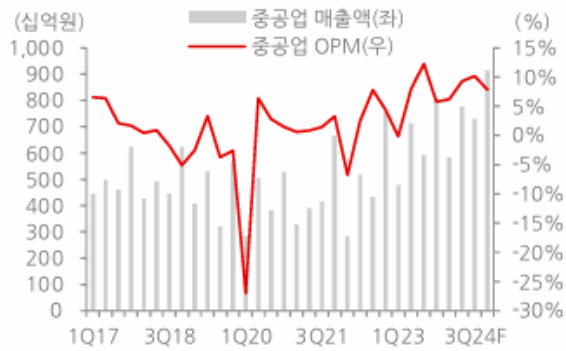
자료: 효성중공업, BNK투자증권

Fig. 3: 효성중공업 연간 건설부문 매출액과 O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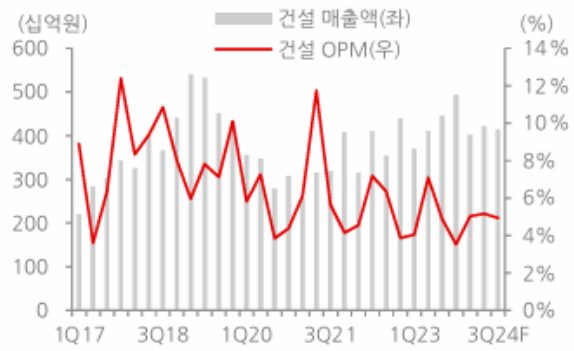
자료: 효성중공업, BNK투자증권

Fig. 4: 효성중공업 분기 중공업부문 매출액과 O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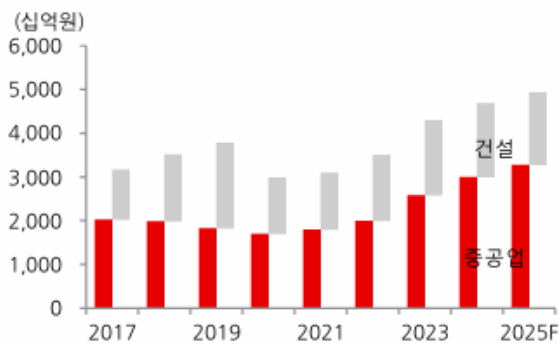
자료: 효성중공업, BNK투자증권

Fig. 5: 효성중공업 분기 건설부문 매출액과 O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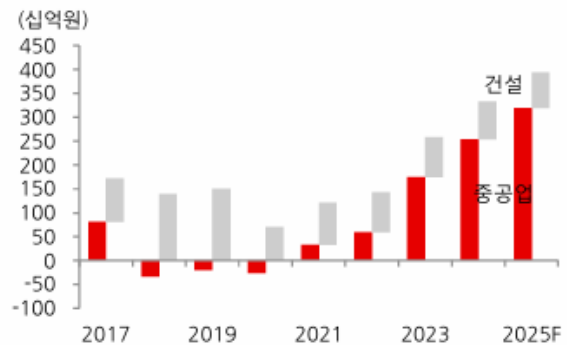
자료: 효성중공업, BNK투자증권

Fig. 6: 효성중공업의 부문별 연간 매출액



자료: 효성중공업, BNK투자증권

Fig. 7: 효성중공업 부문별 영업이익



자료: 효성중공업, BNK투자증권



바이오다인

숨은 알짜, 머지않은 로열티 유입

[출처] 키움증권 허혜민 애널리스트

WHO와 함께 성장하는 액상세포 검사

동사는 액상세포 검사* 기술(블로잉)을 보유한 업체로 체외진단 1위 업체인 로슈와 독점판매계약이 체결되어있으며, 올해말부터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기존 세포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액상세포 검사는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여성인구는 '22년 39억명에서 '30년 42억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발병률 세계 2위로 조기 진단 시 생존율은 68.2%로 향상된다. 따라서 WHO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여성 70%까지 검진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20년 자궁경부암 한 번이라도 받은 여성 33%).

전 세계 특허 보유는 3사가 유일한데, 홀로직과 벡톤 디킨슨이 필더식으로 ThinPrep과 BD SurePath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홀로직 독점으로 '23년 씬프렙이 매출액은 \$480.6mn(YoY +1%)이다. 다만, 암을 암으로 판단하는 확률인 민감도가 홀로직 50% vs 동사가 73%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부터 실적 개선과 추가 모멘텀 기대

실적 전망: 통상적으로 공급된 후, 한 개 분기 뒤에 정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사 또한 이르면 연말 공급 개시되어 '25년 1분기부터 서서히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5년부터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 유입 등으로 동사의 매출액은 200억원, 영업이익은 100억원 규모로 전망되며, 피크 매출에 도달하는 '29년에 보수적으로 매출액 2,000억원, 영업이익 1,500억원 추정된다 (부인과 4억개 테스트+ 비부인과 5천만 테스트).

단순 계산으로 할인율 8% 5개년 현가화하고, 영업이익의 80%가 당기순이익이라고 가정시 약 820억원으로 이에 PER 10배 적용하면 적정 시가총액은 약 8,200억원 수준이다.

RISK: '23년 20억원 영업적자였으나, 감가와 특허 상각비 등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현금 지출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자금조달 우려가 적다 (최근 3년간의 현금성 자산 약 260억원 유지 중). '22년 영업 흑자 67억원을 달성하여 관리종목 지정 우려 역시 낮다.

추가 모멘텀: STD, HPV 및 자궁 경부 세포의 자가 채취 가능한 자가채취 키트 개발하였으며, 이는 현재 다국적사 파트너십 체결이 안되어 있다.

투자지표

(십억 원)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3.8	12.2	4.1	20.0
영업이익	-2.3	6.7	-2.1	10.6
EBITDA	-1.0	8.2	-0.4	12.0
세전이익	-11.1	7.4	-1.2	10.7
순이익	-10.9	5.6	-1.0	8.7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0.9	5.6	-1.0	8.7
EPS(원)	-378	189	-33	292
증감률(% YoY)	적지	흑전	적전	흑전
PER(배)	-18.4	25.1	-405.0	41.9
PBR(배)	5.35	3.19	9.27	5.70
EV/EBITDA(배)	-180.9	14.6	-991.7	27.2
영업이익률(%)	-60.5	54.9	-51.2	53.0
ROE(%)	-47.7	13.6	-2.3	16.2
순차입금비율(%)	-66.0	-46.8	-45.4	-58.8

자료: 키움증권

부인과



✓ 액상세포검사 IP 기술력 인정
(블로잉 테크놀로지)

✓ 바이오다인 개발 제품
✓ 바이오다인 제품 시장성 인정

✓ 독점 라이선싱 계약 체결
✓ 마일스톤 금액 지불 (약 80억원)
✓ 20년 이상 장기 계약

✓ Roche 대량생산 및 글로벌 판매
✓ 로열티 지불(판매량)

자료: 바이오다인,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마트

약재 대부분 소멸, 이제는 펀더멘탈 개선에 주목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잠재적 부채에 대한 리스크 해소

이마트에게 있어 가장 크게 부담되었던 부분은 SSG.COM 사업부의 주주간 계약 사항이었다. 이는 잠재적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요인이었으며, 최근 법률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4일 공시를 통해 Fi가 기 투자한 지분(30%) 제3자에 매각하거나, 신세계그룹이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언론상의 보도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1) 잠재적 부채 규모가 낮아졌고(당사 추정: 1.6조원 → 언론상 보도: 1.15조원), 2) IPO를 통한 엑시트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3자 매각이라는 새로운 조항이 생겨났다는 점과, 3) 연말까지 관련 내용이 해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스크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향후 신세계그룹이 Fi지분을 인수할 경우 추가적인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마트를 포함한 대주주가 대상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상황을 보면 동사가 부담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은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3분기 실적을 봐야할 때

이제는 구조적 실적 개선 가능성에 집중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3분기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이른 시점임에도 3분기 개선을 점치는 이유는 1) 지난해 신세계건설 대손충당금에 대한 1회성 비용과, 2) 희망퇴직 및 점포스크랩에 따른 효율화, 3) 1분기 실적에서 보여준 기초체력 개선, 4) 이마트 24 비효율 점포 정리로 인한 효과, 5) 온라인 사업부 적자폭 축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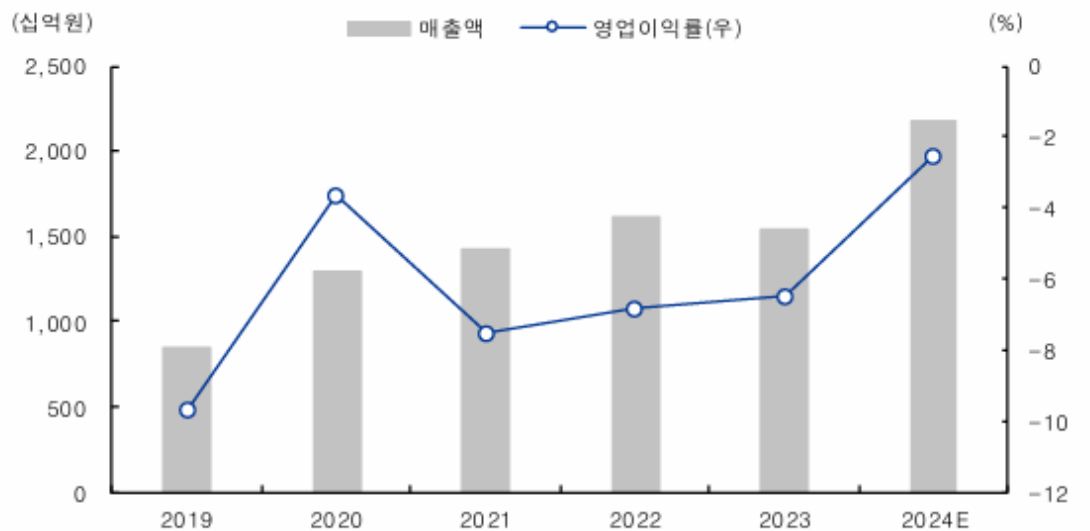
현 시점에서 3분기 실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당사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은 1,114억 원으로(전년동기대비 +42.9%)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2분기 희망퇴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작용할 가

능성이 높지만, 이는 결국 향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기업가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29,332	29,472	30,185	31,350	32,263
영업이익	136	-47	154	179	195
세전이익	1,252	-212	-74	-43	206
지배주주순이익	1,029	-89	-185	-169	109
EPS(원)	36,924	-3,196	-6,643	-6,062	3,907
증가율(%)	-34.5	-108.7	107.9	-8.8	-164.5
영업이익률(%)	0.5	-0.2	0.5	0.6	0.6
순이익률(%)	3.4	-0.6	-0.4	-0.3	0.5
ROE(%)	9.6	-0.8	-1.6	-1.5	1.0
PER	2.7	-24.0	-9.1	-9.9	15.4
PBR	0.2	0.2	0.1	0.1	0.1
EV/EBITDA	8.2	8.6	9.5	10.4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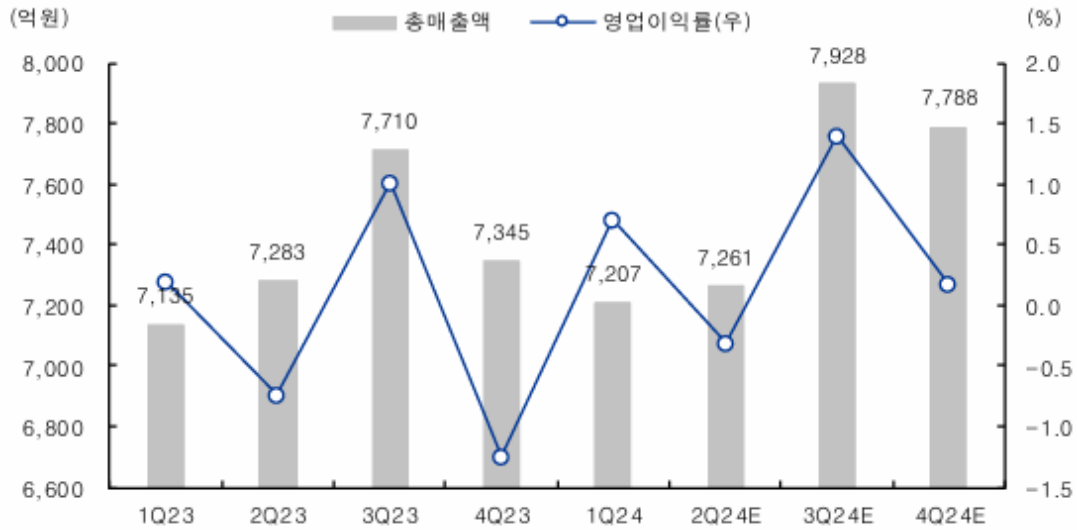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SSG.COM 실적 추이



자료: 이마트, IBK투자증권
 주: 24년 실적은 당사 추정치

그림 4. 이마트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이마트, IBK투자증권





씨티케이

美 OTC & 친환경 소재 사업 확장 기대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은 애널리스트

2Q24 Preview: 전년 2분기 매출액을 초과한 수주 회복

① 24년 1분기 실적: 주요 고객사 매출 이연으로 전년대비 매출액 24% 감소, 2023년 인센티브로 인한 일회성 비용 11억원, 캐나다 바이오 R&D 테스트 및 샘플 비용으로 인한 7억원이 발생하여 8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② 24년 2분기 전망: 매출액 284억원(+18.7% YoY), 영업이익 23억원(+66.5% YoY)이 예상된다. 동사 2분기 수주 현황은 2분기 시작 전부터 전년 2분기 매출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진율 높은 기존 고객사 리오더 매출 증가, 미국 대형 유통사 퓨어 뷰티 PB라인 신제품 11개 발주 영향에 기인한다. 신규 고객사의 명품 브랜드 글로벌 출시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전망: 북미 OTC 사업 확대 & BIO CANADA 신규 매출 발생

24년 하반기 전망: 동사 실적은 상저하고 흐름이 뚜렷할 전망이다. 동사가 제시한 2024년 매출 성장률 목표는 15~20% YoY, 영업이익률 목표는 7~8%이다. 2025년부터는 두 자릿수 이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① 북미 시장의 OTC 사업 확대: OTC 제품 수요가 높아져 본격적으로 OTC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3년 후에는 매출의 30% 이상을 OTC 매출액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TC 제품은 자체 포뮬러를 사용하여 마진율이 40~50%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② CTK BIO CANADA: 2024년 매출 목표는 300만 달러이며, 영업이익은 BEP 수준을 목표하고 있다. 주로 캐나다와 미국 정부 중심으로 공급 계약 진행 중이고, 글로벌 항공사들과의 계약 추진하고 있다. 2025년은 2024년 대비 매출액 10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 Event에 따라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 전망

2024년 동사 PER은 14배로 거래되고 있다. ODM사 평균 PER 17배 대비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유는 1분기부터 타 ODM사 대비 실적 성장이 낮은 부분에 기인한다. 2분기부터 동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긍정적인 Event가 실적에 반영될 경우 주가 상승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694	889	1,053	1,300
영업이익	-152	27	83	120
지배순이익	-177	69	98	127
PER	-9.1	16.5	13.7	10.5
PBR	1.0	0.7	0.8	0.7
EV/EBITDA	-11.0	8.0	5.3	3.5
ROE	-11.0	4.4	6.0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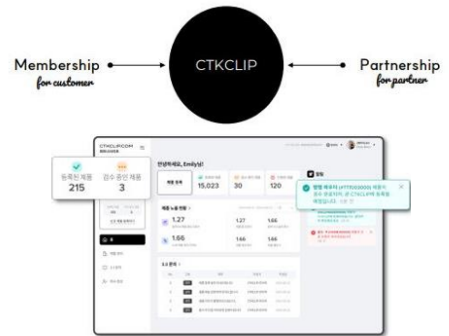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 8] CTK 주요 고객사



자료: 씨티케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CTKCLIP.com



자료: 씨티케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의료용과 산업용, 두 마리 토끼를 잡자

동사가 주력중인 의료 AI의 경우 깊은 도메인 지식이 요구되는 부문. 자체 의사 인력 보유, 성모병원 및 중대병원 등 대학 병원과의 네트워크 활용해 데이터를 축적함. 시장 진입이 빨랐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진입 장벽을 확보했다는 판단. 그리고 동사는 뇌동맥류 분석에 경쟁력을 보유한 딥뉴로 외에도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산업용 머신비전 AI 수주도 큰 폭 확대 중

동사는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구축이 가능하며 심평원 수주 레퍼런스 보유. 이는 해외사업 관련 매력 포인트.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기존 엑스레이보다 CT와 MRI 수요 증가하면서 동사 솔루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

추가 성장동력으로 산업용 및 보안용 솔루션 매출 기대. 고객사로 산업용에서는 2차전지 벤더 및 디스플레이사, 보안용에서는 공항공사 기대. 2차전지 관련으로는 조립공정 이물질 검출 장비, 디스플레이 관련으로는 본딩 공정 및 레진도포 공정에서의 이물질 검출에 활용되는 장비 성장 기대. 올해부터 매출 고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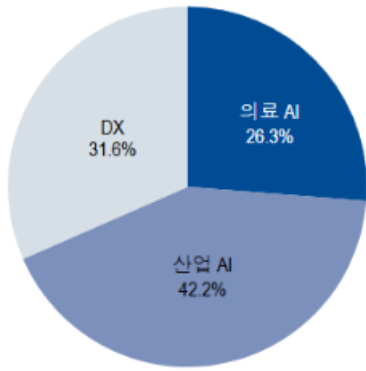
올해 매출 전년 대비 반등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 시현 기대

2024년은 매출액 146억원(+654.2% y-y), 영업적자 축소 예상. 올해는 산업용 머신비전 AI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하며 절반 이상 차지할 전망. 이에 더해 공항 및 관세청향 보안 매출 및 의료 AI 부문의 양호한 성장 기대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1.9	14.6	30.2	41.3
증감률	-39.2	654.2	107.1	36.7
영업이익	-6.7	-2.8	7.7	13.6
증감률	적지	적지	흑전	76.3
영업이익률	-348.0	-19.2	25.5	32.9
(지배지분)순이익	-6.7	-2.3	8.3	14.5
EPS	-334	-104	371	645
증감률	적지	적지	흑전	74.2
PER	N/A	N/A	23.9	13.7
PBR	8.8	8.0	6.0	4.2
EV/EBITDA	N/A	N/A	19.2	9.9
ROE	-36.3	-8.9	28.6	35.8
부채비율	26.7	45.8	49.2	42.6
순차입금	-29.5	-31.2	-44.2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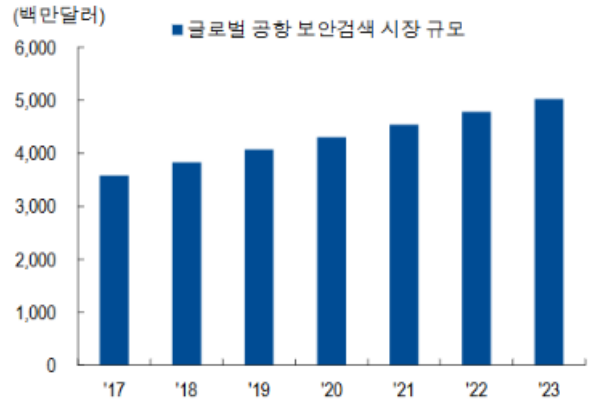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산업용 AI 비중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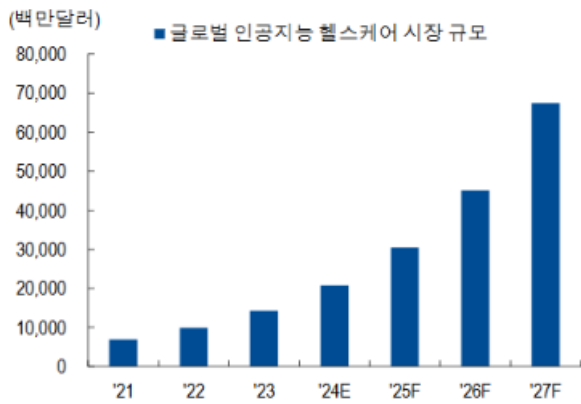
자료: 딥노이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동사가 주력하는 공항 보안용 AI 시장도 꾸준히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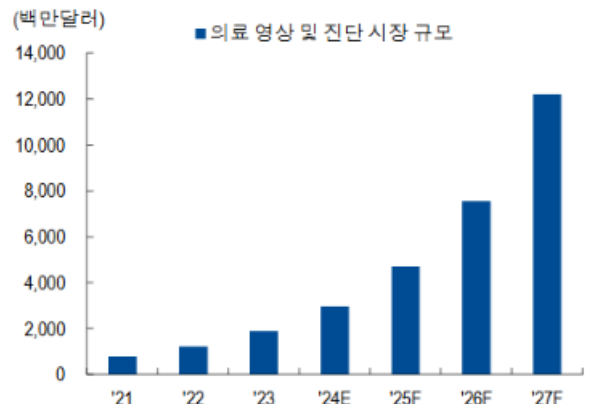
자료: Global Market Insights, 딥노이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글로벌 시장에서의 의료 AI 시장 가파른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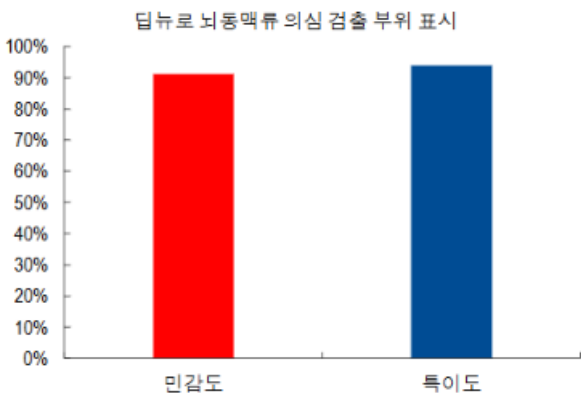
자료: MarketsAndMarkets, KISTI, 뷰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영상을 활용한 진단시장 또한 고성장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 KISTI, 뷰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딥뉴로는 주요 지표인 민감도도 90% 이상 달성



자료: 딥노이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공항에서 활용되는 딥시큐리티 제품



자료: 딥노이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